

# 화제의 신발

## 윤달이 낀 갑신년

윤달이 낀 갑신년은 지금으로부터 120년전 1894년 갑신정변이 일어나던 해로 정변의 기운이 남치는 해다. 120년만에 찾아온 윤달이 낀 갑신년은 역사적으로 숭의패라 하고 정치적으로는 격동기를 맞을것이며 사회적으로는 대단히 혼란스러우나 경제는 서방의 힘과 힘이 동맹으로 물러오므로 대단히 좋아질 것이다.  
또한 윤달이 낀 갑신년은 없는자의 지갑은 채워진다하여 지갑과 신발을 바꾸면 부자가 되고 건강장수하며 부처님 공양구를 집안에 들이면 삼재를 물리치고 만사형통한다 했다.

# 성불화 롬비니 신발

### 세상에서 가장 가볍고 편안한 신발

### 120년 만에 찾아온 윤달이 낀 갑신년 **숏의 해!** 윤달이 낀 갑신년에 신발을 선물하면 건강장수합니다.



남여공용 성불화

#### 롬비니는 석가모니 부처님 고향 이름

세상에서 이렇게 가볍고 편안한 신발이 있을까? 성불화 롬비니를 신는 순간 누구나 이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최첨단 신발과학의 명품으로 불리는 물론 일반인들 까지도 감탄과 찬사를 받으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에 사는 공무원 K씨는 광고를 믿지 않지만 어머니가 10년이상 관절염으로 활동도 못하고 고생하는 것이 안타까워 신발이라고 가볍고 편안한 신발을 사드리려고 하던중 성불화롬비니신발이란 신문기사를 읽고 속은 쉰치고 구입해 드린것이 지금은 1Km이상 가볍게 걸을수 있으며 활동도 한다고 한다. 서초구에 사는 P여사는 신발이 너무 가볍고 편해 1족을 구입했으나 혹시 생선이 중단되면 어쩌랴 해서 평생 신으려고 3족을 더 구입했다 할 정도로 가볍고 편안한 최고급 신발로 평가 받고 있으며 여의도에 사는 개인도 편사도 짙에 다니는 친구가 신은 것을 보고 너무 좋아 표정을 띠니 사시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 과학적인 설계 개발기간 2년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세계적인 전문 신발메카인 (주)스타필드 신발공학센터에서 2년의 연구기간과 수억원의 개발비를 투입하여 만든 성불화롬비니가 출시 1년만에 국내시장을 석권하며 젊은 층은 물론 골퍼들까지도 필드에서 갑판과 찬사를 하고 있다.

#### 최고급 천연방수 가죽 뉴백 사용

과학적인 설계로 신발의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

여 대단히 가볍고 편안한 것이 특징이다. 롬비니 신발은 최첨단 신소재와 20만원대 신발에만 사용하는 최고급 천연방수가죽, 뉴백을 사용했으며 밑창은 골프화 같이 초경량 골프그립을 개발하여 점지력과 마도력을 강화했고 눈, 비, 흩날림에 미끄럼 방지기능이 탁월하며 원적외선과 음이온이 발생하여 신선대사를 촉진하고 발냄새를 제거하는 기능성을 갖추었다. 디자인면에서는 평상복 또는 케주얼복에도 잘 어울리게 제작했으며 불차님들의 사츨복공시, 또는 성지순례와 해외여행, 등산에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시켜주는 과학적이고 인체공학적인 신발이다.

#### 소원성취 연꽃과 화를 쫓는 금강저 넣어

성불화롬비니는 신는순간 부터 소원이 성취되게 부처님 꽃이며 소원성취 꽃인 연꽃과 길 떠날때 화를 쫓고 악귀를 물리친다는 금강저 까지 넣어 자신감을 갖게한 것이 돋보인다. 120년만에 맞는 윤달이 낀 갑신년은 건강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해다. 역사적으로 서방의 기가 동방으로 흘러면서 전염병과 풍토병 또는 괴질만연하여 특히 노약자들은 건강적으로 어려움을 당할수 있는 윤달이 낀 갑신년으로 생신 또는 회갑을 맞을때 건강장수를 기원하는 뜻에서 신발을 선물하는 풍습이 지금도 있다. 성불화롬비니는 남녀공용으로 225mm-285mm까지 사이즈 별로 제작되어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보내준다. 가격88,000원 문의전화 080-755-0003 동행944-12-417900 고덕림

## 갑신년 스님께 선물은 만행화

### 신발보시로 무명업장을 녹이고 좋은 과보 받는 갑신년!



스님을 섬기는 것이 부처님을 섬기는 것이라 했다. 눈을 돌려 집 주변에 관심을 갖고 보면 너무나 어려운 스님, 노후에 거처가 편치 않는 스님, 병고로 고통을 받고 있는 스님 등 가슴 아픈 분들이 집 주변에는 많이 있다. 영하의 추운 산속에서 절절고무신 하나로 겨울을 보내는 스님께서 동상이 걸려 고통 받는 스님도 계시고 그것이 고행이라 생각하고 수행하는 스님도 있다. 불자라면 꼭 자기가 모시는 스님이 아니라도 깨끗한 마음과 착한 정성으로 따뜻한 자비의 신발을 보시한다면 전생에 지은 무명업장을 녹이고 오는 생애 좋은 과보를 받을 것이다. '복중에 지입가는 복이 인연복'이라 했다. '작은 불씨라도 마음을 열면 무량대복' 된다고 했다. 120년만에 찾아온 윤달이 낀 갑신년에 스님전용 신발인 만행화를 보시한다면 무명업장을 녹이고 무량대복을 받을 것이다 스님께는 건강장수하여 원대한 포교 원력을 가지고 중생구제에 힘쓸 것이다. 스님전용 신발 만행화 롬비니는 (주)롬비니에서 스님의 숭복 석상에 맞춰 품위있게 제작된 최고급 신발로 대단히 가볍고 편하며 장시간 만행에도 피로함을 극소화 시킨 신발과학의 결정체라고 회사 관계자는 자부한다.

만행화신발은 스님의 건강을 위해 신선대사를 촉진하는 음이온이 강력하게 발생되며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 93%의 원적외선을 발생시키고 추운겨울에는 대단히 따뜻하고 여름에는 땀을 배출하는 기능과 눈비때때에 미끄럼 방지 기능이 탁월하게 제작된 최고급 기능성 신발이다. 가격88,000원 보시 또는 문의전화 : 080-755-0003 동행944-12-417900 고덕림



## 부처님 福 지갑

### 東西南北의 福을 모으는 靈驗!



남여공용 변지갑

여성용 정지갑

★ 고급 케이스에 담겨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우신분은 꼭 사용하세요.

## 영험의 롬비니 福 지갑

### 120년 만에 맞는 갑신년 **숏의 해.** 롬비니 福지갑으로 부자되세요

#### 갑신년 선물로 최고!

생일선물! 개업선물! 이사선물! 결혼선물!  
합격선물! 승진선물! 취업선물! 사랑의 선물!

#### 왜! 윤달이 낀 갑신년에 지갑을 바꿔야 하는가?

120년만에 온 윤달이 낀 갑신년은 격동의해로 아주 특별한 해입니다. 역사적으로 윤달이 낀 해는 언제든지 누구나 삼재를 맞는 것과 같은 해로 환란을 소멸 하고자 윤달이 낀 해에 따라, 부모님의 수의를 장만하면 좋은 해가 있고, 가구를 바꾸면 좋은 해와, 적색내의를 입으면 좋은 해, 등 해에 따라 다르며 2004년 갑신년은 120년전 갑신년과 같이 서방의 힘과 힘이 동맹으로 물러오면서 지갑과 신발을 바꾸면 좋은 해입니다. 특히 윤달이 낀 갑신년에는 돈이 집울 잃고 방황하는 해라 하여 **숏의 해**라고 돈의 집인 지갑을 새지갑으로 바꾸면 방황하는 돈이 새지갑으로 들어오는 해로 120년만에 온 윤달이 낀 갑신년입니다.

부처님지갑인 롬비니 福지갑에는 불교에서 유일하게 동서 남북의 복을 부르는 부처님성구 8자를 지갑정면에 넣고 윤달이 낀 갑신년 인귀와 집귀를 물리치고 건강을 지키는 금강저를 지갑 내부에 숨금도금하여 넣었으며 부처님 꽃이며 소원성취꽃인 백연화를 넣어, 가지고 다니는 순간부터 자신감을 갖게 했습니다. 부처님 지갑인 롬비니 福지갑은 평안인 소매산에서 부처님께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드린 영험의 지갑입니다. 브랜드를 롬비니라 한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 탄생지 이름입니다.

부처님 지갑인 롬비니지갑은 안과 밖이 똑같은 최고급 천연가죽으로 내부도 거름지갑과는 비교가 될수 없게 대단히 잘 꾸며져 있으며 국내 최고급 지갑으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롬비니지갑은 부처님지갑으로 지갑을 받으시면 사물함 분의 신분증등을 넣고 깨끗한 상위에 놓은 다음 서쪽을 보시면 3배하시고 사용하시면 윤달이 낀 갑신년에 삼재도 물리치고 소원성취 하십니다.

#### 이런분은 꼭 사용해 보세요.

- 사업을 하면서 어려우신 분
- 개업을 준비중인 분
- 정사를 하고 있으나 인재를 분
-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 분
- 할상 하는 일이 안되는 분
- 결혼을 앞둔 분
- 추운 겨울 준비중인 분
- 특별한 선물을 찾고 계신 분
- 집을 팔려고 하시는 분
- 절포를 팔려고 내놓으신 분

### 신청 및 문의전화: 080-755-0003

전화로 롬비니 福지갑을 받으실 주소와 성명을 알려주시면 우체국택배로 전국 어디나จัดส่ง해 보내드립니다. 남여공용변지갑55,000원 여성용정지갑95,000원은 신용카드 분할 또는 하기구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동행944-12-417900 고덕림

